일본 선진 노인복지현장을 가다

〈하〉 구마모토현 치매 대책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치매 환자의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사회 시스템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2008년 도입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부담금을 최대 20% 지불하면 요양 보호사들이 집이나 요양 시설에서 대신 돌봐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정밀 검진을 위한 보건소와 병원 간의 연계·치매 진단 이후의 지원 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전남지역 인구와 비슷한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의 치매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일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청 8층 대회의실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이 전남도와 시·군 복지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치매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후쿠오카 한 노인복지시설. 간병인이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다.

무료검진·거점병원·자원봉사자… 치매환자 책임지고 돌본다

의료보험·장기요양보험·지역지원 세가지 축… 치료 본인부담 10%
전문인력·병동 갖춘 병원 10곳… 환자 집 방문 초기에 집중지원
자원봉사자수 15만명 전국 1위…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라

일본의 치매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본은 치매환자 관리에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난 1일 일본 구마모토현청에 따르면 45개 시·정·촌(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을 거느린 구마모토현 주민 수는 지난 2011년 10월 말 현재 모두 182만 명.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5.7%다. 45개 시·정·촌 중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0% 넘어선 시·정·촌만 28곳이다.

전국 평균은 23.3%다. 구마모토현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 1도(都)·1도(道)·2부(府)·43현(縣) 중 20위다. 남자 평균수명은 79.22세(전국 평균 78.79세), 여자 평균수명은 86.54세(〃 85.75세)이다. 평균수명을 감안하면, 구마모토현의 평균수명은 전국에서 10위(남자)·3위(여자)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인정자 비율은 19.6%이며 전국 평균은 17.2%다. 구마모토현은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3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마모토현 치매환자 수는 2010년 기준 5만명. 2015년엔 5만9000명, 2020년엔 6만5000명, 2030년엔 7만3000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의 치매정책은 의료·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지역지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분돼 있다. 우선 구마모토현엔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치매거점병원이 10곳 지정돼 있다. 이곳에선 치매 전문인력과 전문병동이 갖춰져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담당 의사가 있는데, 이들 담당 의사는 수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조기검진 등을 실시, 치매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치매검진에서 치매로 확진될 경우 담당 의사가 그간 진료해온 기록을 해당 치매거점병원으로 넘겨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청에선 담당 의사를 대상으로 치매대응력 향상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치매 발병 사실이 밝혀진 후 즉각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초기집중지원팀도 신설했다.

우리나라 치매 정책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250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 여부를 점검하는 간이 진단사업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간이 진단에서 의심 판명을 받은 노인에 대한 정밀 검진은 85개 시·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또 치매 진단을 받아도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 및 관련 치료약 개발도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치매거점병원도 없는 지역이 대다수다.

2000년에 우리의 요양보험 격인 개호(介護)보험을 도입한 일본은 치매 서비스도 보장하고 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개호 신청을 하면 지방정부는 전문 상담사(케어매니저)의 조사를 통해 개호 등급을 매긴다.

치매 환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집에서 개호복지사의 서비스를 받는다. 개호에 들어가는 비용의 90%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낸다. 다시 말해 치매 노인 등이 건강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내면 횟수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간병을 집에서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마모토현은 치매환자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치매전문보호시설 또는 치매환자의 집에서 이들을 돌보거나 빨래·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구마모토현은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구마모토현 자원봉사자 수는 15만 명. 자원봉사자 수는 전국에서 1위다. 자원봉사자 지원서비스를 첫 시작한 2006년엔 자원봉사자 수가 2682명이었다. 구마모토현은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

구마모토현 건강복지부 장수사회국 요시다씨는 "치매가 사회문제화 된 게 2004년인데, 개인소득에 따라 자부담의 차이가 일정부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병원·지역민들이 연계,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 '치매'라는 말도 2004년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인지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편견없는 자원봉사자들, 치매대책 성공요인

■구마모토현청 장수사회국 마치오씨

"장수를 즐기는 사회에,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에서, 장수를 즐기는 사회만들기에…."

이는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현(Kumamoto·熊本縣)청 건강복지부 장수사회국 담당 직원 마치오씨가 연수 내내 강조했던 말이다.

이 문구는 구마모토현청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 노인·장애·아동·여성 등 모든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문구를 모토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구마모토현에서 추진 중인 복지정책 중 치매대책을 으뜸 정책으로 꼽았다. 구마모토현의 치매대책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선진적이다.

그는 치매대책 성공 요인으로 차별화된 지역지원체제 구축을 지목했다. 의료시설·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도 있지만, 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이다.

치매가 사회문제화 된 2004년부터 치매대책 담당을 해온 그는 지역지원 체제를 위한 첫 단추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첫 해인 2006년엔 2682명, 이듬해엔 5586명, 2008년엔 2만3283명이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15만55명이다. 전국 최고 규모의 자원봉사자 수다. 구마모토현 치매 환자 수가 5만 명인점을 감안하면, 자원봉사자 3명이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셈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말끔히 씻어냈다.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날수록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마치오씨는 "치매는 '노망'이 아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치매의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 우린 2004년부터 병명을 아예 '인지증'으로 바꿔버렸다"며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들이 바로 우리 현청의 자랑인 치매전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말했다.

마치오씨는 또 "환자 가족들의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이들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은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